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배경

- 유럽중앙은행(ECB)은 5월 6일 정례회의를 갖고 7월 이전에는 기준금리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힘.
 - Trichet ECB 총재는 “적정 시기라고 판단이 선다면 언제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하겠으나 현재는 물가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”고 언급함.
 - 금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거론된 '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경계(strong vigilance over rising inflation)'라는 표현이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됨.
- 금번 기준금리 동결 이전에는 유로지역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속될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음.
 - 유로지역은 지난 4월 물가상승 기대심리 확산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(0.25%p)하는 등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함.
 - 미국은 2008년 12월 이후 기준금리를 0.125%로 동결시켜 왔으며 최근 FOMC회의에서는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계획이 없음을 밝힘.
 - 일본은 2010년 12월 기준금리를 0.05%로 인하한 뒤 동결을 유지하고 있음.
 - 과거 물가상승으로 인한 ECB 기준금리 인상 주기가 2.2개월임을 고려할 때 6월 중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었음.
- ECB는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 유럽 주변부 국가의 경제성장 둔화, 금융시장 유동성 악화, 유로화 강세 등을 거론함.
 - 기준금리 인상은 유럽 주변부 국가의 경기회복을 더욱 더디게 함.
 - 주변부 국가의 모기지 및 기타 대출 금리는 단기 금리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소비와 투자가 억제될 가능성이 높음.
 - 최근 미국과 영국 경제의 성장모멘텀이 약화되고 있고 그간 유럽 경제를 주도한 독일도 경기가 다소 둔화되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조짐을 보임.
 - ECB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1/4분기 은행대출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, 특히 가계대출 부문이 위축된 것으로 파악됨.
 - 유로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유럽 주변부 국가의 경기회복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임. (Wall Street Journal 등 5/7, 5/6)